

## 중동지역, 이스라엘 및 미국 제품 불매운동 확산

- 사우디를 미국의 적국으로 표현한 미국 랜드(Rand)연구소의 보고서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양국관계가 미묘한 긴장상태에 놓인 가운데, 사우디를 비롯한 걸프지역 국가들은 이스라엘 및 미국 제품 불매운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음.
- 사우디 정부는 이스라엘 제품을 수입한 190개 외국기업의 목록(Blacklist)을 발표하고 이스라엘 제품 수입제한 조치를 더욱 강화. 국가별로는 요르단 72개, 사이프러스 70개, 이집트 23개, 터키 11개사 등이며 이들은 사우디 국내에서 영업을 금지됨
  - 이들은 원산지 증명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지난 10개월간 농산물, 휴대폰, 전기제품 등 1억 5,000만 달러 상당의 이스라엘 제품을 수입한 것으로 밝혀졌는데, 이 금액은 동 기간중 이스라엘의 GCC\*지역에 대한 수출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임
- \* 사우디, 쿠웨이트, UAE, 바레인, 카타르, 오만 등 걸프지역 6개 국가들이 공동안보 및 상호협력을 목적으로 1981년 5월 결성한 걸프협력위원회(Gulf Cooperation Council)
- 이스라엘의 금년 상반기중 아랍국가들에 대한 직접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9% 감소한 4,880만 달러이며, 아랍국가로부터의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% 증가한 3,610만 달러 기록
  - 사우디에 대한 수출액은 160만 달러로 이는 전년대비 98%나 증가한 것으로 화학제품, 기계류가 주종을 이루고 있음
- 사우디는 법으로 이스라엘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,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외국기업을 아랍연맹\*의 이스라엘 제품 불매운동에 따라 블랙리스트에 등록하고 있음

- 아랍권의 이스라엘 제품 불매운동은 1951년 5월 'Office of Arab Boycott of Israel'(OBI) 설립과 함께 시작되었으며, 1990년대까지 적극 시행되지 않았으나, 2000년 9월 팔레스타인의 제2차 인티파다\*\* 발발과 함께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음

\* 아랍연맹(Arab League)은 제2차 세계대전후 '단일아랍국가'를 슬로건으로 아랍주권국간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사우디, UAE, 이집트, PA 등 22개국이 1945년 3월 결성

\*\* 인티파다(Intifada)는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에 대한 민중봉기로서 제1차는 '87년 12월, 제2차는 2000년 9월 발발하여 팔레스타인영토 및 주권회복을 위한 독립운동으로 발전

- 1991년 걸프전 이후 대부분 아랍국가들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1993년부터 이스라엘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일부 중지

- 제3국 소재 기업으로부터 이스라엘 제품 수입은 허용하되, 이스라엘 기업으로부터의 직접수입은 계속 금지

- 최근 아랍지역에서는 이스라엘 상품뿐만 아니라 미국산 제품에까지 불매운동이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, 맥도날드, 코카콜라, 펩시콜라, 스타벅스 등 다국적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음

- 이집트에서 영업중인 Macdonald's Egypt는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을 피하기 위해 상호를 Manfoods로 변경

- 휴대폰 문자메시지, 스티커 등으로 불매운동이 확산되는 양상

전문연구원 황수영(☎3779-6655)  
E-Mail : sooyhwang@koreaexim.go.kr